

‘예비창업자 주목!’ 2018 창업 트렌드는?

여성·어린이·솔로 공략...가성비 넘어 ‘가심비’

여성·어린이·솔로이코노믹 공략
행복·가치기반의 건강·환경·여행
VR 등 4차혁명 관련 아이템 눈길



/픽사베이

지난 2017년은 지속된 경기 불황과 먹거리 파동,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소비침체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뒤로 하고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창업 트렌드는 윌로라이프의 확산과 가성비(가심비), VR의 발전과 활용, 합리적가격, 여성과 어린이, 솔로이코노믹 그리고 서비스테크놀로지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다.

2일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창업 트렌드는 윌로라이프의 의미와 같이 자신의 소비 초점을 행복과 가치기반에 두면서 건강, 환경, 품위, 만족을 위한 소비충족의 트렌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성비(가심비)의 만족도를 넘어 소비에 따른 심적 만족감, 즉 가심비의 상승을 중요시 하는 소비 형태 변화가 예상된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시장의 확대에 따라 VR(가상현실) 아이템의 성

장도 한편으로 기대된다. 최근 게임과 학습, 체험을 가상현실에 활용한 아이템들이 성장하고 있고 컴퓨터와 증강시물레이션의 성장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으로의 투자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아이템의 발전속도와 소비자의 지속소비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있어 지속적 소비를 통한 수익성 여부와 관련 프로그램의 사행성, 폭력성 등이 우려로 대두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관련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세심히 고려한 후 창업아이템으로의 선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한 가성비(가심비)는 소비자의 마음적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발달과 품질의 향상을 요약한 가심

비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다. 불황에도 꾸준한 소비력의 주체는 여성과 어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적극적인 소비의 대상이자 주제로 등장함에 따라 브랜드 중심형 소비의 지속과 함께 합리적 가격을 위한 경제적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최저시급의 사상최대폭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이 창업과 노동계에서 큰 이슈다.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키오스크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운영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패스트푸드업종과 라면 규동 등 소위 말하는 소자본 창업아이템 업종에서의 키오스크 운영은 대중화 보편화가 현실이다. 이는 인건비의 상승과 경성비중 관련 부분의 확대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련사항을 도입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의 변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창업관련 키워드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합리적 가격, 솔로이코노믹, 서비스테크놀로지, 가성비 등 경기상황과 같은 맥락에 의한 소비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

본과 일인운영 아이템으로 실생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소비가 향상될 것이다.

솔로이코노믹의 주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소비형태가 나타나며 그들을 목표로 한 창업아이템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달앱이나, 대행앱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나 아이템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구매의 패턴과 형태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력 기반형 구매의 성장에 기인한다. 이러한 트렌드와 관련해 합리적 가격 지향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업, 세탁편의점, HMR아이템, 복합형태의 테이크아웃 치킨아이템, 여행업, 샌드위치음료전문점, 건강관련헬스클럽, 구매대행쇼핑몰 등이 우수한 아이템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올해 창업시장은 참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인건비의 상승, 경기하락의 심화, 정치적 격랑에 따른 불안정, 복핵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폭 등 많은 부분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이 예상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창업시장의 둔화가 예상되며 창업보다 수성을 위한 창업전략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필요한 시기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창업단신

▲베스킨라빈스, 1월 이달의 맛 ‘더블 바닐라 초콜릿’

베스킨라빈스가 2018년 첫 번째 이달의 맛으로 ‘더블 바닐라 초콜릿’을 출시했다. 고 밝혔다. 달의 케이크 ‘롱이여밤의 해피 하우스’, 음료 ‘더블 바닐라 초콜릿 와썹류 셰이크’, 디저트 ‘달리셔스 콘테이너 쿠키 앤 크림’과 ‘달리셔스 콘테이너 고구마와 밤’도 새로 선보였다.



▲피자알블로,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가맹점주·직원 만족도 ↑

피자알블로가 핫팩 나눔, 간판 청소 지원, 겨울용 점퍼 지원 등 매장 운영 및 업무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와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피자알블로는 이번 겨울 힘들게 일하는 배달 직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배달을 다닐 수 있도록 전국 280개 매장에 핫팩 및 2018년 다이어리 등을 지원했다.



▲뚜레쥬르, 새해 맞이 제품

뚜레쥬르가 ‘황금 개피의 해’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올 한해 행운과 복을 기원하는 신년 제품을 출시한다. 이번엔 선보이는 제품은 황금개피의 활기찬 기운을 담은 이색적인 모양이 특징이다. ‘희망 담은 고구마크림 브레드’는 강아지 모양으로 만든 빵으로 고구마 크림을 넣었다.

▲BBQ, 새해 첫 출근길 격려 캠페인

BBQ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 1500여명에게 따뜻한 닭곰탕을 나눠 주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인용 기자



시무식 신년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제천화재에도 정신 못차린 서울 목욕탕

3곳 중 1곳 불나도 대피 못해

불시 점검서 120개소 위법 적발
비상구 막히고 소화전 앞 창고로

충북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도 서울시내 목욕탕 상당수가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28일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소방특별조사(불시 점검)한 결과 120개소에서 소방 법규 위반 사항 33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 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반은 ▲비상경보설비와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살펴봤다.

조사반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위법사항 330건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이나 찜질방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 ▲방화문에 이중닫문(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곳이 7건 ▲한중



(위쪽부터)옥내 소화전 앞이 창고로 사용되는 모습. 피난 통로를 막고 있는 모습. /서울시

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8건 등 269건이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됐다”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문을 당겨 열지 못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와 현직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진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서울시가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범중 기자 joker@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범중 기자 joker@

시몬스 침대
현대백 압구정점
팝업스토어 오픈

시몬스 침대가 스페셜 팝업스토어로 고객과 만난다. 시몬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가구 및 생활 가구 컬렉션 ‘케노샤’로 구성된다. 리뉴얼 매트리스 4종과 케노샤의 가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방문 고객에 한해 상품별로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시몬스 전문 슬립마스터의 일대일 수면 큐레이팅과 더불어 제품 체험 기회도 가능하다.

뷰티레스트는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이다. 다양한 수면 습관에 맞춘 매트리스 설계와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케노샤는 소파, 테이블, 침대 커버 등 생활 가구 및 욕실 용품을 판매한다. 소파의 경우 고품질에 착한 가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특별 팝업스토어는 이달 14일까지 운영된다. /임현체 기자 ih@



/시몬스